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 행복하게

보도	2025.9.16.(화) 15:00	배포	2025.9.16.(화)	
담당부서	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총괄팀	책임자	국 장	박상만 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	김범준 (02-3145-7447)

이찬진 금융감독원장, 여전사 CEO 간담회 개최

1 간담회 개요

- '25.9.16.(화)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개 여전사 CEO 및 여신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,
 - 금융소비자 정보보호 강화 등 여전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여전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

[여전사 CEO 간담회 개요]

- ☑ 일 시 : '25. 9. 16.(화) 15:00 ~ 16:00
- ☑ 장 소 : 여신금융협회 11층 회의실
- ☑ 참석자 : (금융감독원) 이찬진 원장, 한구 중소기업부문 부원장보,
여신금융감독국장, 중소기업검사3국장
(여 전 사) 여신금융협회장, 14개 주요 여전사 CEO

2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

-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여전업이 지급결제 인프라 제공, 기업 자금공급 등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,
 -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, 사이버 침해사고 등 도전적인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당부하였음

① 금융소비자 정보보호 강화

- 최근 금융권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단기실적에 치중하여 장기투자애 소홀한 결과는 아닌지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함을 당부하면서,
 - 금융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한 지출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핵심투자임을 강조
- 카드업권의 경우 전 국민의 정보를 다루는 점에서, 제로톨러런스 (Zero-Tolerance) 원칙하에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

② 소비자 친화적 업무패러다임으로의 전환

- 침해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소비자가 카드 사용중지 및 재발급 등 자기보호를 위한 방어권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접근채널(앱·홈페이지·콜센터 등)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,
-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소멸시효 연장 자제, 고령층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
 -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자체 채무조정, 근로자 햇살론 확대 등 연체차주의 재기지원과 취약계층 자금공급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

③ 내부통제 강화 및 건전성 관리

- 경영진이 앞장서서 내실있는 내부통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내년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를 충실히 준비할 것을 당부
- 아울러, 경기변동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자체 관리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,
 -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중·저신용자의 자금조달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

4 모험자본 공급 확대 및 경영 혁신 지속

- 여전업권이 기술 기반 성장단계(Scale-up)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,
- 감독당국도 신기술금융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, 혁신금융 서비스와 겸영·부수업무의 폭넓은 허용 등을 통해 여전사의 투자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밝힘

3 참석자 발언 요지

- 여전사 CEO들은 취약차주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
 - 부동산 PF 정상화, 가계부채 관리 및 지급결제업무 혁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임을 밝힘
 - 한편, 결제시장 경쟁 심화,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 경영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
 -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여전사의 사업영역 확장을 위하여 금융당국의 정책적·제도적 지원을 요청
-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여전사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는 업권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재차 강조하면서,
 - 향후 감독·검사업무에 업권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,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해나갈 것임을 밝힘

(별첨)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